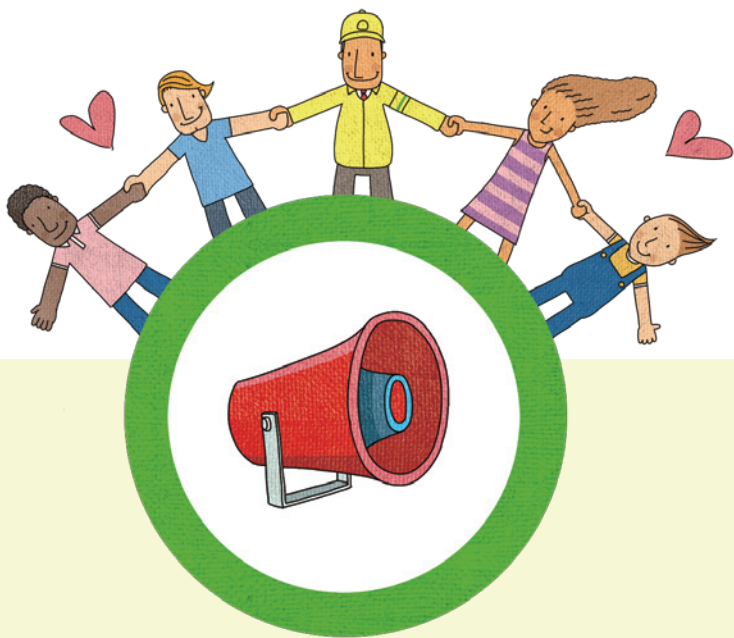


한국에서 안전하게 지내기 위한
단 하나의 키워드
민방위 훈련



민방위 훈련에 대한 가이드 및 Q&A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생활도우미 Public Broadcast Alarm Evacuation Drills

민방위 훈련이란?

민방위는 전시 및 재난 등 각종 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다.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주민이 대피하도록 경보를 발령한다.

민방위 훈련이 왜 필요한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 방법과 행동 요령을 알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는 매년 주민대피 훈련인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이 민방위 훈련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오는 5월 4일에 실시되는 지진 대비 민방위 훈련은 외국인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훈련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

외국인일지라도 누구나 민방위 훈련에 동참할 수 있는가?

물론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역시 민방위 훈련에 참가해 재난안전에 대한 지식과 행동 요령들을 알아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민방위 훈련은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안전 생활 도우미'이기 때문이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만이 안전한 생활을 위한 첫걸음

“5월 4일”

지진대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세요!

최근 일본에서 지진, 지진해일이 발생해 큰 피해를 겪었다. 인근지역인 한국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만일의 상황을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와 행동 요령을 알려주기 위한 지진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

언제?

5월 4일 수요일 오전 11시

어디서?

전국 읍 이상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훈련 내용은?

재난위험 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복구 훈련으로서 지진, 지진해일을 비롯하여, 원전방재, 지하철 안전 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보발령

오전 11시를 기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3분간 재난위험경보 사이렌(파상음)이 울리며, 이후 훈련이 진행되는 15분간 전국 주요도로에서 주민이동 및 교통이 통제된다.

훈련참여 방법

- 실외에서는 소지품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인근 공원이나 광장 등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한다.
- 실내에서는 1분 정도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한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 운행중인 차량은 갓길에 정차해 재난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비상차로 확보에 협조한다.

지진

지진이란?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지진대와 접하는 유라시아판 동쪽 가장자리 내부에 있어 그동안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 지진 발생 회수가 1978년 관측 이후 평균 18회에서 1997년부터 연평균 38회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미리미리 주의가 필요하다.



지진 발생시 행동 요령

* 지진 발생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이다.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꼭 잡고 몸을 피한다.



*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는다. 진동 중에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



* 문이 비뚤어져 갇힐 수 있으므로 미리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 후, 진동이 멈추면 신속히 밖으로 대피한다.



* 야외에 있을 때는 간판, 건물 조각 등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로 부터 머리를 보호하고 위험물로부터 벗어나 공원, 광장 등 넓은 곳으로 몸을 피한다.



*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지진해일(쓰나미)

지진해일이란?

해저에서의 지진, 해저 화산 폭발, 단층운동과 같은 급격한 지각변동이나 빙하의 붕괴, 핵실험 등으로 발생하는 파장이 긴 해일을 지진해일 또는 쓰나미(Tsunami)라고 한다.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해안가에서는 평소와 다르게 높은 파도가 일어 큰 피해가 발생한다.



지진해일 발생시 행동 요령

- * 일반적으로 일본 서해안의 지진대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보고되면 약 1~2시간 후 한국의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도달하게 된다.
- * 지진해일 도달 가능 영역은 한국의 동해안 전역이고, 파고 3~4m 정도의 지진해일이 발생한다.
- * 심한 지면의 진동을 느꼈다면 가까운 곳에서 큰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해안지역에서는 수 분 이내 지진해일이 해안으로 밀려올 수 있다.



- * 해안에서 지진을 감지하거나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 저지대 도로에서 운전중이라면 즉시 높은 지대 도로로 대피한다.



- * 지진해일이 발생하였을 때 '더 멀리'가 아니라 '더 높은' 지대로 대피한다. 지정된 대피소로 피할 시간이 없다면 건물의 3층 이상으로 대피하면 된다.



- * 지진해일 특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해안의 낮은 지역으로 가지 않는다.



풍수해(태풍, 호우)

풍수해(태풍, 호우)란?

태풍은 주로 7~8월에 많이 올라온다. 호우는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며, 12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 호우 주의보를, 150mm 이상일 경우 호우 경보를 발령한다. 최근 기상 이변 때문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침수와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풍수해(태풍, 호우) 발생시 행동요령

- * 라디오, TV를 통해 기상 방송을 계속 청취한다.
- * 긴급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이웃과 행정기관 연락망을 확인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외출을 삼간다.
- * 집이 침수되면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차단한다.
- *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우산을 쓰지 말고 전신주, 큰나무 밑은 피해 낮은 곳으로 가거나 큰 건물 안으로 대피한다.



- * 보행자의 경우 물에 잠긴 도로는 가급적 피하고 조그만 개울이라도 건너지 않는다.



- * 등산이나 낚시, 피서지에서 조난을 당할 경우, 119에 신속히 알리고 구조대가 발견하기 쉬운 곳으로 대피한다. 불을 피워 연기를 내거나 옷가지를 매달아 위치를 알린다.



- * 운전 중에는 물에 잠긴 도로나 잠수교를 피해 아는 길을 이용하여 저단기어로 운행한다. 하천변에 주차한 차량은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 사망했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이 있을 경우 현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 119에 신속히 알린다. 부상자에게는 응급처치를 해준다.

민방공

민방공이란?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곳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지만 정부와 군, 다른 유관 기관과의 상호 협조아래 위급상황에 대비한 훈련시스템이 잘 되어있어 안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민방공 훈련을 통해 행동 요령을 알려주고, 실제적인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에 전국민의 220%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대피소가 지정되어 있다.



민방공 경보

- **경계경보:**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상·해상 공격이 예상될 때에 1분간 평탄음으로 발령된다.
- **공습경보:**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상·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 3분간 파상음으로 발령된다.
- **화생방경보:** 적의 화생방 작용제가 살포되거나 탐지되었을 때, 그리고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이 확인되면 음성으로 방송한다.

※민방공 훈련은 실제 상황이 아닌 훈련이라는 점을 고려해 평소에는 공습경보에서 경계경보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민방공 공습경보 발령시 행동요령

- *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화재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제품 스위치를 끄고 가장 가까운 지정 대피소로 대피한다.
- * 거리를 걷고 있는데 공습경보가 울렸다면 유도요원의 통제에 따라 가장 가까운 인근 지정 대피소로 대피한다. 야외에 대피장소가 없을 경우, 지형지물을 이용해 대피한다.
- * 운전 중이라면 가까운 빈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시킨 후 대피한다.
- * 대피장소에서는 계속 방송을 들으며 소방방재청의 지시에 따른다.
- * 우리 집과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가 어디인지 알아두고, 가정내 비상대비 물품과 비상약품, 화생방전 대피물품을 구비해둔다.





민방위 훈련과 관련된 궁금증 Q&A

Q 지난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 일대에 지진이 발생했고, 2011년 3월에는 일본에서 지진, 지진해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인근 지역인 한국은 안전한가?

A 한국은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같은 태평양 연안 국가에 비해 지진, 지진해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 그러나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Q 민방위 훈련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하나?

A 민방위경보가 울리면 교통이 통제되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 또한 통제된다. 당황하지 말고 훈련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미리 지정된 안전한 대피장소로 대피한다.

Q 민방위 훈련 중 운전중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나?

A 운행 중인 차량은 훈련이 끝날때까지 갓길에 정차시킨다.



응급 전화 안내

소방방재청

재난발생시 응급상황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락한다.

119

24시간 연중무휴로 삼자통화를 통한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관광공사

응급한 상황 발생시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할 수 있다.

1330

 휴대폰 02-1330

24시간 연중무휴로 영어와 일어, 중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전문상담요원과 의사가 응급 의료에 대한 안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1339

24시간 연중무휴로 영어와 중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간시간(06:00~18:00)에는 일어 서비스도 가능하다.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